오리지널 인간으로 강등

(갈2:15~21)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로원복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로원이라고 하는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의 원리는 제가 창안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원리를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20절이 그 제로원복음의, 십자가복음의 내용상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오리지널 인간으로 강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가까워오는데 많은 분들이 승진이 되기를 바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강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오리지널 인간으로의 강등, 승진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건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승진이 안 돼도 여러분의 2014년의 삶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족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강등만 되면 됩니다.
오리지널 인간으로 강등되기를 기도하면서 연말연시를 보낼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새해가 걱정되십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강등만 되시면 문제없을 겁니다.
돈이 많이 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돈은 없어도 걱정이 안 될 수 있고, 있어도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문제고 자식 때문에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리지널 인간으로 강등만 되면 새해에는 걱정 없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 9월인가 의정부에서 18년형을 구형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30대 부부인데, 스물한 살에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아빠가 딸을 성폭행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일을 방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얼굴만 인간이지 마음은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 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인면수심의 존재로서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짐승 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짐승 같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본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면, 이상하게 하나님 같은 아름다움도 하나님 같은 거룩함도 없어집니다.
이상하지요?
짐승이 하나님 같이 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면수심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극악한 패륜적이고 부도덕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마음이 짐승 같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사건으로 복음을 만들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이루어지는 복음의 효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게 대체 뭐냐?
오리지널 인간으로의 강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같이 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오리지널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강등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미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더 이상 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승진이 돼있는 상태에요.
한 그룹의 회장님 자리가 문제가 아닐 정도로 더 높은 자리인 하나님과 같이 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이 없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걱정거리와 불행과 근심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겁니다.
오리지널 인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에덴동산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로부터 오리지널 인간의 자리로 강등되기만 하면 내 삶의 상태가 그

냥 그대로~ 더 안 벌어도 돼요, 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에덴동산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 약속을 믿으세요.

많은 약속이 새해가 되어서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표어로 내거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허황된 욕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구절을 갖고 표어를 삼아도.
올해의 목표는 무조건 강등되는 겁니다.
하나님같은 자리에서 강등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 같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같이 된 인간은 짐승 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탐욕의 상징으로 돼지를 말하지요, 그러나 돼지는 아무리 24시간 먹을 것만 찾는 것 같아도 자기 위 크기의 80% 이상을 채우는 법이 없답니다, 인간은 120% 200%까지 먹어요.
하나님같이 되면 짐승 같은 수준에 머무를 수도 없어요.
짐승 같은 수준에만 도달했어도 현재 지구 위에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상의 50% 정도는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때에 하나님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돌연변이 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리지널 인간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오리지널 인간으로 강등되기 위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는 것이 바로 강등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길입니다,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뒤 구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앞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반복하는 얘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때 육체 안에 산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 자체는 이해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감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리지널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인가?
그걸 알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이 확연하게 비교돼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같이 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한번 알아보아요.
우선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한 거짓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있었던 게 아니고, 죽지 않는다는 말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짓말, 육체가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신령한 몸으로 입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졸업장과 같은 거예요.
졸업하는 걸 두려워하는 중학생이 없고 졸업하는 걸 두려워하는 고등학생이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면 대학을 못 들어가서고 앞날이 깜깜해서 걱정이지 서울대학 입학자격 따놓은 고3 학생이 졸업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졸업하고 천국으로 입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졸업은 축하해야 됩니다, Congratulations!
근데 이게 두려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속임수가 아닌 거예요, 진짜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점화시킨 겁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데에.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재료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창조하신 1, 2, 3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같이 된 인간이 어떤 모습이다, 그러면 오리지널 인간은 어떤 모습이라는 게 또 비교돼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좋다고 여기시는 것이 생각이 나시면, 반드시 생각난 것을 현실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마음에 당신이 좋게 여기시는 것이 떠오르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상상으로 끝날 때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자기앞수표와 같이 현찰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가져가면 10만 원 현찰로 바꿔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단계별로 구분하면, 1단계로 하나님은 마음에 좋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바라십니다.
2단계는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현실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당신이 이루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대로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 부분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곧바로 이어 나오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좋다고 여기는 것을 떠올립니다.
좋다고 여기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첫 번째 단계에요.
두 번째 단계는, 내 마음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현실로 갖고 싶어 하고 현실로 이루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지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마음속의 그려놓은 좋다고 여겨지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은 말뿐 아니라 행동하고 가지각색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마음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그 일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흐뭇해합니다.
성취감에 들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더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걸 이루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극한 반대로 이루게 되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더 자긍심에 차있기도 하고.

이렇게 일의 성취감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똑같다는 얘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서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좋은 것을 떠올리고, 예를 들어 명품가방을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계를 들든지 가지가지 방법으로 그걸 현실화시키려고 해요, 마음에 집어넣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 스스로 내 마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마음에 받아들이고, 일단 마음에 좋은 게 받아들여지면 그걸 행동으로 내 것이 되도록 현실화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가진 다음에는 백을 떡하니 들고서는 '야아! 이 백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성취감에 만족해합니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이 상태 때문에 인면수심의 상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극악무도한 죄악이 다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세요, 마음에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떠올리고 마음 안에 받아들입니다.
마음 안에 받아들인 좋은 것을 실제 현실로 내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쥐게 되면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당연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고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마음에 좋은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이루면 행복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똑같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해 보이는 인간의 삶에 대한 자세 같은데, 아주 깡그리 뿌리째 근절시켜야만 되는 죄악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지널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원래로 돌아가서 생각해요.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위임해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곤란하지요, 다스리는 자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면 다스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 모순되는 명령이에요.
다스리라, 그러나 선악은 판단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모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위임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의 모순 속에 오리지널한 인간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모순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오리지널한 인간의 모습이 솔로몬에게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다스려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선악을 판단해줘야 하는 케이스 케이스마다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선악과를 토해내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다스리라는 위임이 현실화되었는데 선악과는 토해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지혜라고 번역된 그 말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허락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리지널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품백을 갖고 싶다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대학에 들여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선악의 판단이 중지된 상태니까.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아이를 키운다는 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게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경영하고 양육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내용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아이를 키우는데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안돼요, 왜냐하면 죄악의 습성 때문에.
이미 자식을 바라볼 때는 이 자식에게 좋다, 나쁘다가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는 게 좋고, 삼성그룹에 입사하는 게 좋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마음에 있고 그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그리고 이루면 성취감을 느끼는 하나님과 같이 된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이루는 것도 내가 마음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돼버립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내가 마음에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룸으로써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이것이 없어야 돼요.
이게 선악과를 토해내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악의 습성 때문에 저절로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죽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좋게 여겨져서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좋은 것들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는 거꾸로 나쁜 것에 대해서도 죽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나쁜 게 있으니까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니까 나쁜 게 있는 거고.
그러므로 좋은 것에 대해 죽으면 나쁜 것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게 나쁜 거라서 우리가 싫어하지만 돈이 안 벌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우리는 건강한 게 좋은 거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육체의 가시를 담고 사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판단으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 삶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좋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 꿈과 비전과 소원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 행동하라, 추진하라, 열심히 노력하라'
이게 다 마귀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에 좋다고 여기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만이 유일한 과제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에덴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쁜 상태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에덴이 돼서 기쁜 마음이 돼버리면, 하

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올리시고,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은 공수표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여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새해에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금년에 이것을 못 이루어서 안타깝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떠올리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은 에덴의 살아있는 현장이 될 거예요.
승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맙시다.
아이들의 형통, 이런 거 걱정하지 맙시다.
나 자신이 그저 오리지널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강등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강등되는 삶, 그래서 에덴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강등되지 못했기 때문에 2013년도 웃을 때보다는 걱정할 때가 더 많았음을 저희가 압니다.
이제 새해에는 강등을 목표로 살게 하시고 오리지널한 인간으로 강등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진짜 살아있는 에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